‘신 피겨퀸’ 김채연 “대학 진학 미루고 올림픽 준비에 집중”

하얼빈 아시아게임 이어 4대륙 평정…“김연아 언니 연기 지도 큰 도움”

“‘엄마’가 만들어주는 의상 입고 꿈의 무대 밀라노 올림픽에 서고 싶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과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스케이팅 사대륙선수권대회를 연거푸 석권한 ‘신피겨퀸’ 김채연(18)은 대학 입학을 1년 미뤘다.

1년의 세월을 오롯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준비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김채연은 “대학 진학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대학교에 입학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올림픽 준비에 집중하고 싶다”며 “스스로 결정했고, 부모님도 내 뜻을 응원해주셨다. 내 결정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리고를 졸업한 김채연은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닌 ‘경기일반’ 소속으로 뛴다.

김채연처럼 국제 메이저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 경력을 가진 피겨 선수가 운동을 위해 대학 진학을 미룬 예는 드물다. 국내 톱클래스급 선수들은 대부분 체육특기생으로 주요 대학에 진학해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빙상계 관계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국내 피겨 선수가 대학 진학을 미룬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주변에선 ‘김채연다운 결정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 빙상계 관계자는 “김채연은 목표 의식이 매우 뚜렷한 선수”라며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사대륙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도 그랬다.

김채연은 연기 막판 왼쪽 종아리 근육 경련 증세에 시달렸다.

그러나 김채연은 고통을 꾹 참고 마지막 연기 과제인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실수 없이 처리했다.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고통이 따랐으나 끝까지 버텨내 개인 최고점을 받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채연은 “훈련할 때는 가끔 근육 경련 증세가 나타난 적이 있는데 경기 때는 처음이었다”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나서 (다리에) 힘이 들어갔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다행히 점프 과제를 모두 처리한 뒤 통증이 시작됐고, 끝까지 버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이어갔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채연은 다음 달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기세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던 김채연은 2년 연속 수상을 노린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차례 이상 입상한 국내 선수는 김연아가 유일하다.

김채연은 “이번 대회엔 올림픽 국가별 쿼터가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싶다”며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기록한 개인 최고점(222.38점)을 넘어서는 것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면 한국 신기록 경신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여자 싱글 선수의 ISU 공인 최고점은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세운 228.56점이다.

김채연의 도전이 의미 있는 건, 그의 성장 과정에 김연아의 땀방울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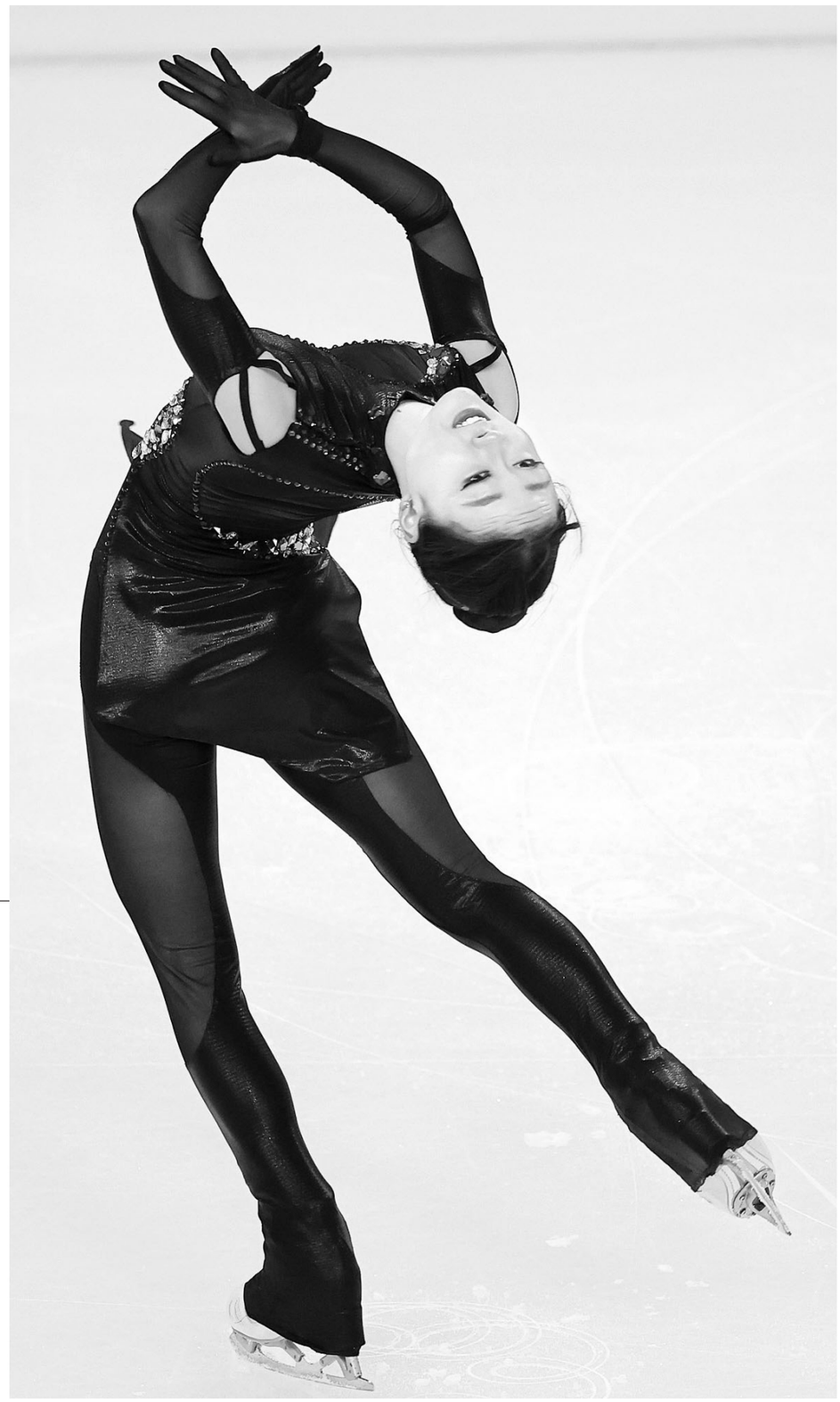
김연아는 올 시즌을 앞두고 직접 훈련지를 찾아 김채연의 안무 동작 교정 작업을 돕고 많은 조언을 남겼다.

김채연은 “김연아 언니가 연기 지도를 해줬다”며 “특히 안무 동작 포인트를 봐줬는데, 감정을 넣어 연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채연은 2023-2024시즌 ISU 공인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모두 60점 초·중반대 예술점수(PCS)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선 68.49점,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선 70.09점을 받으며 개인 최고점 경신의 밑바탕이 됐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의상을 입고 올림픽 무대에 서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김채연은 대학 시절 의상 제작을 전공한 어머니 이정아 씨가 직접 만든 의상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김채연은 “엄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뛰면 매우 든든하다”며 “엄마 옷을 입고 꿈의 무대를 밟고 싶다”고 각오를 새겼다. /연합뉴스



김채연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 피겨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군청,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개인전 우승

김병훈 대회 2관왕

무안군청 검도팀이 2025년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검도대회 우승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무안군청은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부천시청을 2-1로 꺾으며 단체전 우승을 거뒀다.

앞서 무안군청 검도팀은 단체전 1차전에서 충남체육회를 상대로 2-1승을 거둔 뒤 준결승전에서 오른 뒤 울산시청에 4-2로 승리했다.

또 무안군청 김병훈은 생애 첫 전국 대회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장성중·고, 목포대를 졸업한 김병훈은 지난해 무안군청에 입단해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팀을 승리로 이끈 이광철 감독은 “동계훈련 마치고 올해 첫 대회라 부담감도 있었다. 첫 단추를 잘 꿰어 선수들도 다음 대회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또 그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기량이 고르다. 특히 올해 김병훈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더 굳게 먹고 열심히 하더라. 앞으로 더 여유가지고 경기치르면 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훈련을 추구하고 있다”며 팀 분위기를 전한 이 감독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정신력이다. 여기에 더해 체력과 기술적인 것들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딱딱한 규율을 없애고 서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선수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무안군청 검도팀이 지난 24일 전북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동계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무안군청 제공〉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전북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열렸으며, 전국 남녀 23개 팀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육상 고승환·복싱 임애지, 대한체육회 체육상

광주·전남 체육인 5명 수상

광주·전남 체육인 5명이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했다.

2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광주시청 육상 고승환, 화순군청 복싱 임애지, 광주체고 육철수 교장, 이용범 광주시파크골프협회장, 김백수 전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감독이 각각 경기, 학교체육, 생활체육, 지도 부문에서 체육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육상 국가대표 고승환은 한국신기록과 대회신기록을 경신하며 지난해 전국체전 4관왕에 올랐고, 국제대회에서도 연이어 금메달을 획득했다.

임애지는 지난해 열린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여자복싱 최초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며 복싱 역사를 새로 썼다.

육철수 교장은 과학적 훈련법을 통해 체육 인재를 양성하며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했고, 이용범 파크골프협회장은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며 종목 활성화에 앞장섰다.

또 김백수 전 감독은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세계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 소프트테니스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진아 기자 jinggi@

“한국서 뛰어보자”…프로배구 女쿼터 신청 몰려

남자부 101명·여자부 45명 지원

도입 3년째를 맞는 2025 KOVO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 예년보다 많은 선수가 몰려 구단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오는 2025~2026시즌 V리그 무대를 누빌 아시아권 선수들을 뽑는 이번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 남자부 101명, 여자부 45명이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4년 드래프트에 남자부 69명, 여자부 37명이 신청한 것에 비해 눈에 띄게 급증한 수치다.

이는 남녀부 각 3일씩 트라이아웃을 치렀던 지난해와 달리 트라이아웃 없이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진행, 외국 선수들의 한국 방문 불편을 최소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수 수가 늘면서 각 구단의 시즌 운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 시즌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위파위), IBK기업은행 알토스(천신통) 등 일부 구단은 시즌 중 부상 선수가 발생했지만 아시아쿼터 인력풀이 넓지 않아 선수 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 드래프트는 4월 11일 개최되며, 남녀부 각 7개 구단은 드래프트 직전까지 기존 선수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연맹에 통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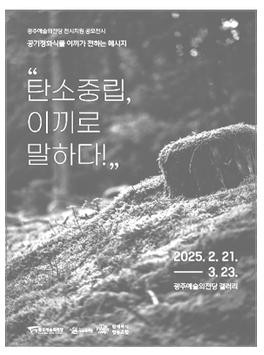
현재 2024-2025시즌 V리그에서 활약 중인 여자부 장위(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메가(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 남자부 신펑(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등 기존 선수들은 드래프트 하루 전날인 4월 10일까지 아시아쿼터 재신청하면 된다.

한편, 페퍼스는 아시아쿼터 도입 첫 해인 2023년 5순위로 필리핀·미국 이중국적인 엠제이 필립스를 영입했으며 지난해 5월 1순위로 중국 국적의 장위를 지명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4회 정기공연
'비발디 글로리아'
일시 : 2025-03-28(금) 18:00
장소 : 광주광역시청 시민홀
문의 : 062-613-8246



GAC 공모전시
탄소중립, 이끼로 말하다! : 원예복지협동조합
일시 : 2025-2-21(금)~2025-3-23(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